

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전에도 뉴욕에는 이미 극심한 정신 건강 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.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서는 정신 건강 요구 발생이 더욱 높았지만 치료로 이어지는 것은 적었습니다.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.

1 흑인 및 라틴계 뉴욕거들은 코로나19 위기가 그들의 정신 건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합니다.

- 2020년 4월에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서는 백인(17%)보다 라틴계(24%) 및 흑인(24%) 시민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자신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([출처](#))

2 코로나19 관련된 인종 차별 경험은 정신 건강 요구를 만들어냅니다.

- 2020년 4월에 뉴욕거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 응답자의 25%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인종 차별, 폭력, 또는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([출처](#))
- 뉴욕시 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은 인종 차별을 “항상”, “많이”, 또는 “때때로” 경험한 성인(15%) 사이에서 “조금” 경험했거나 “전혀” 경험하지 않은 성인(5%)에 비해 세 배 높습니다([출처](#))

3 우울증,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은 뉴욕시의 최전방 근로자들은 여러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- 뉴욕시 감사 사무소(Comptroller's Office)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 내 전체 최전방 근로자의 75%가 유색 인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([출처](#))
- 일화적 증거에 따르면 필수 근로자들은 계속되고 있는 노출과 관련하여 치솟는 불안감을 경험하고 고용주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([출처](#); [출처](#)). 사소한 직업 관련 결정이 이제는 큰일이 되었고, 이는 불안,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 발달의 원인 또한 될 수 있습니다([출처](#))

4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서는 우울증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실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

- 뉴요커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17일~19일에 실시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, 실직을 경험한 뉴요커는 흑인 뉴요커 35%, 아시아계 미국인 뉴요커 40%, 라틴계 뉴요커 44%를 기록한 반면, 실직한 백인 뉴요커는 1/3(32%)에 불과했습니다(출처)
-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전주에 이웃 중에 실직한 사람이 있다고 밝힌 뉴요커 중 82%가 불안감을 느꼈고 (일부는 대부분의 시간에 불안감을 느낌), 73%는 우울하거나 절망감을 느꼈으며,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1%에 불과했습니다(출처)

5 뉴욕시의 흑인 및 라틴계 커뮤니티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.

- 2020년 4월 27일 자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흑인 뉴요커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209.4명이었고, 라틴계 뉴요커의 경우 10만 명당 195.3명이었습니다. 이에 비해 백인 뉴요커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107.7명으로 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(출처)
- 갑작스러움(출처),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시간(출처), 그리고 가족들의 슬픔(출처)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죽음을 둘러싼 상황들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이고(출처) 복잡한 슬픔(출처)을 키워나갈 위험이 많습니다.